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12:9-14(현대인의 성경)

1. 말씀

9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10 형제처럼 서로 따뜻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11 나태해지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12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고난을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13 가난한 성도들을 돋고 손님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14 여러분을 팝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3. 메시지

- 바울은 9-14절에서 여러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들이 있고 가장 당신의 마음에 와 닫는 권면은 어떤 것인지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바울이 9절에서 소개한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나요?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과 순수한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_____

-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려는' 결단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혹, 선을 택하기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었다면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바울은 고난 중에서 '희망 가운데 기뻐하고,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

다. 이 바울의 권면이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 _____

-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신은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4절에서 '여러분을 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라는 바울의 권면은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 _____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사랑, 선을 행하기, 주님을 섬기기, 고난 중에도 기뻐하기, 다른 사람을 돋기,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기... 당신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그 부분을 위해 당신이 결단하고 실천할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12:9-14(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성경은 사랑에 대해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무조건적인 절대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역동성과 진취성 그리고 낙천성이 나타나며 승리의 삶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본위로 살아가는 인간 사회는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으로 가득 차 있기 마련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선으로 인간의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울도 이제 우리도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소중한 형제가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고, 게으르지 말고, 섬기는 마음으로, 소망 중에 함께

즐거워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을 대하여, 내 안에 여전히 이기심과 교만이 간혹 고개를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보다 내 편안함과 감정을 앞세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나의 본성과 습관이 가장 잘 나타내는 가정에서부터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6. 기도